

- 주요 뉴스: 미국 8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하락.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및 금리인하 기대 증가
 - 미국 상원,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 안건 승인. 법원은 연준 쿡 이사 해임 보류
 - 프랑스, 르코르뉴 총리 취임. 야당의 총선 요구 및 노조의 파업은 지속
 - 중국 8월 생산자물가, 하락세 둔화. 소비자물가는 예상치 하회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8월 생산자물가 하락, 금리인하 기대 증폭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3%], 달러화 강보합[+0.02%],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Oracle 강세 등으로 나스닥지수와 함께 사상 최고치
유로 Stoxx600지수는 소프트웨어 및 통신주 약세 등으로 약보합
 - 환율: 달러화지수는 8월 소비자물가 발표 전 경계감 등으로 강보합 마감
유로화 가치는 0.1% 하락, 엔화 가치는 약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증가, 양호한 10년물 입찰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86.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9.2원, 0.19% 상승). 한국 CDS 하락

		9/10일	9/9일	전일대비			9/10일	9/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532.0	6,512.6	+0.30%	국채 금리 10y	미국	4.05%	4.09%	-4bp
	유럽	552.29	552.39	-0.02%		독일	2.65%	2.66%	-1bp
	중국	3,812.2	3,807.3	+0.13%		영국	4.63%	4.62%	+1bp
	일본	43,838	43,459	+0.87%	CDS 5y	한국	18bp	19bp	-1bp
	한국	3,314.5	3,260.1	+1.67%		중국	41bp	42bp	-1bp
환율	달러지수	97.81	97.79	+0.02%	위험 지표	EMBI+	-	364	-
	유로화	1.1695	1.1708	-0.11%		VIX	15.35	15.04	+2.06%
	엔화	147.46	147.41	-0.03%		WTI유	63.67	62.63	+1.66%
	위안화	7.1210	7.1238	+0.04%	원자재	구리	455.0	450.1	+1.09%
	원화	1,386.6	1,387.9	+0.09%		금	3,640.8	3,626.6	+0.3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8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하락.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및 금리인하 기대 증가

- 8월 헤드라인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월간 및 연간 상승률은 -0.1%, 2.6%로 전월(각각 0.7%, 3.1%) 대비 낮은 수준. 근원 PPI의 경우도 각각 -0.1%, 2.8%를 나타내 전월(각각 0.7%, 3.4%) 대비 오름세 둔화. 이번 결과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PPI가 전월에 비해 떨어진 것은 4개월 만에 처음
- 구체적으로 도·소매업체의 마진이 크게 줄어 서비스부문 전반의 하락을 유도. 이는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상품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아울러 이번 결과는 기업들이 관세정책으로 비용이 증가했으나 과도한 가격 인상은 자제했음을 의미
- 반면 일부에서는 7월의 높은 PPI를 고려하면, 8월 결과는 다소 과장되었으며, 물가 전반에 관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여전하다고 진단(Capital Economics). 전문가들은 재차 금리인하 기대를 높이면서도 인하의 속도와 폭은 내일 공개될 8월 소비자물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관측(TradeStation)
- CME의 FedWatch에 따르면, 9월 금리인하 폭은 0.25%p로 예상되며(가능성 92.1%), 내년 말까지 총 6번의 금리인하(각 0.25%p)가 가능할 전망
- 한편 시장에서는 최근 주가의 연이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금리인하 기대라는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생산성 향상과 향후 재정지출 증가 가능성 등 보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분석(Nationwide)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상원,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 안건 승인. 법원은 연준 쿡 이사 해임 보류

- 상원 은행위원회는 백악관 미란 국가경제위원장의 연준 이사 지명 안건을 가결. 향후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정식 이사가 되려면 상원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 현 상황에서 다음 주 예정된 9월 FOMC 참석 가능 여부는 불분명
- 한편, 워싱턴 D.C.의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를 모기지 사기 혐의로 해임한 것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에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쿡 이사의 해임은 어려울 전망

■ Barclays, S&P500지수 연말 목표치 상향. 기업실적 개선 및 AI 기대 등을 반영

- Barclays는 S&P500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높이고(6050→6450), 기업실적 개선과 AI 관련 낙관적 전망 등을 이유로 제시. 내년 목표도 상향(6700→7000). 한편 JPMorgan 역시 S&P500지수가 내년 초 70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로 단기적 측면에서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

■ 프랑스, 르코르뉴 총리 취임. 야당의 총선 요구 및 노조의 파업은 지속

- 르코르뉴가 정식 총리로 취임했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예산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 하지만, 국민연합은 계속해서 총선을 통한 새로운 내각 구성을 요구. 또한 노조는 긴축 예산안에 반발하며 18일 대규모 파업을 계획
-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은 정국 불안에도 양호한 제조업 활동 등의 영향으로 3/4분기 성장률이 0.3%를 기록, 안정적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중국 8월 생산자물가, 하락세 둔화. 소비자물가는 예상치 하회

- 8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9% 하락, 전월(-3.6%)에 비해 내림세 둔화. 생산자물가는 하락세가 다소 완화되었는데, 이는 당국의 과잉생산 억제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추정.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4% 떨어져 예상치(-0.2%) 하회. 이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에 기인
- 이번 결과로 일부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가 발생했으며,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 및 이에 따른 리플레이션 전망도 제기. 이를 반영하여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일비 상승(1.82%, +2bp), 5일 연속 오름세 지속. 한편, 당국의 증시 활성화 의지 역시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유발하면서 가격 하락을 유도

■ 블룸버그 설문조사, 일본은행의 연내 금리인상 전망 증가

- 이코노미스트 대상 조사에 따르면, 연내 금리인상을 예상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0%로 이전에 비해 상승. 구체적 시기로는 10월을 전망한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으나 이전(42%)에 비해 하락. 내년 1월까지 금리인상 기대한 응답자는 88%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11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소비자물가, 9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ECB 통화정책회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채권 투자자의 금리인하 기대, 인플레이션 고려한 신중함 요구 - 블룸버그

(Bond-Market Bets on Deep Fed Cuts at Risk From a Hot CPI Reading)

- 고용 둔화와 8월 생산자물가의 전월비 하락 등으로 9월 금리인하 기대가 고조. 이후에는 연내 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 장기적 측면에서는 내년 말까지 성장촉진을 위해 정책당국이 금리를 중립 수준(3.0%) 이하로 낮출 가능성도 고려
- 그러나 11일 발표될 예정인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연준 목표치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연율 3.1%)이 제기. 이에 일각에서는 물가수준이 높으면 금리인하가 어렵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 경기 하방 위험과 트럼프의 압박도 거세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간과하지 않으려는 성향 보유

■ 미국과 인도의 관세협정, 장기적 측면에서의 상호 이해관계 감안할 필요 - 블룸버그

(Don't Let Tariffs Tank the US-India Relationship)

- 미국은 對러시아 제재를 위해 인도産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인도는 거세게 반발. 인도는 전체 상품 수출의 약 1/5 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50% 관세가 철회되지 않으면 GDP 1%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 인도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지만 미국과의 협력에서 얻는 이익과 비교 시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 오히려 인도는 이번 기회를 성장을 위한 개혁,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미국 역시 인도는 중국 견제 및 공급망 다각화에 필요한 파트너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 중국 국채금리 상승,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증시로의 자금 이동 등에 기인 - Financial Times

(Chinese government bond yields rise to 2025 high)

- 지난해 채권수익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 이는 부동산시장 붕괴, 상품 생산 중심 산업정책 등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었기 때문. 하지만, 다음의 이유들로 금년 국채금리는 7월 이후 가파른 상승 지속(30년물은 2.21%로 연내 최고치, 10년물은 1.82%로 4월 이후 최고 수준)
- 첫째, 정부의 과잉생산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근원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에서 디플레이션 완화 징후가 발생(Barclays). 아울러 이러한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Citi). 둘째, 주가 상승세 지속되면서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촉진(Goldman Sachs). 셋째, 글로벌 재정적자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세계적인 장기 국채 매각 흐름에 동참

■ **디지털화폐 과열, 금융시장 내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위험 신호 - Financial Times**

(How worried should we be about the crypto crush?)

- 시장에서 거품의 증거를 찾고자 할 때 가장 손쉬운 예시는 디지털화폐. 일례로 포장재·재고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Eightco의 경우 최근 샘 올트먼의 흥채스캔 기술과 연계된 디지털화폐 토큰 매입을 발표하자 주가가 5,000%까지 폭등
- 이처럼 많은 상장기업들이 본업을 접고, 미국 정부가 선호하지만 현실적 사용은 제한적인 토큰에 투자. 이것은 금융시장의 과열과 지나친 낙관론을 나타내는 경고 신호. 심지어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작하기도 전에 나타난 현상
- 낙관론자들은 미국의 기업 실적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하나, 시장의 회복력과 비이성적 과열 사이의 경계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 디지털화폐 시장의 거품을 단순한 겉가지 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

■ **미국의 고용통계 수정, 고용 둔화가 트럼프 시대 전부터 지속되었음을 시사 - 블룸버그**

(The big BLS jobs revision makes one thing clear)

■ **미국 고용 둔화에 의한 금리인하 전망, 정확한 이민 통계 반영이 요구 - Financial Times**

(Migration and the jobs market)

■ **미국 대형은행의 저조한 국채입찰 참여, 공급 과잉·여타 기관 참여 증가에 기인 - 블룸버그**

(Big Banks Nearly Get Shut Out of Treasury 10-Year Auction)

■ **미국 대법원의 관세 재판, 트럼프 승소 시 세금 전반에서 대통령 권한 남용될 소지 - WSJ**

(Tariff Case Could Give Trump Massive New Fiscal Powers)

■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미국 개입 부재 등으로 중동 긴장 고조될 우려 - 블룸버그**

(Israel's Air Strike on Qatar Threatens Mideast Escalation)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